

정치인 '탐심' 과 불교도 '의심' 이 빛은 비극

이슬람교도에 시민권 부여도 안해 로힝야 보트족 매달 '최고치' 기록 스리랑카 주류세력 불교도 장악 불교-이슬람교도 결혼 금지법도



OIC(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의 무슬림 종교지도자들의 지난해 11월 미얀마를 방문한 데 대해 미얀마 스님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미얀마·스리랑카, 이슬람 및 힌두교 탄압 거세져 日 유리코 코이케 의원, "불교계, 소수민족 반감 털어내야"

종교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 민족이 소수 민족을 탄압하는 나라, 미얀마와 스리랑카. 서구 언론은 2012년부터 '불교도의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탄압'에 주목하며 속속 날선 비판에 나섰지만 정작 그 대열에 동참하는 아시아 언론은 드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여성 정치인이 "경전 어느 곳에도 '종교적 인종적 증오'를 드러낸 구절이 없는데 '미얀마'와 '스리랑카' 불교계는 다른 종교와 인종에 적의를 품고 있다"며 "이는 불교 가치를 퇴색시키고 민주주의조차도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70%인 불교도(싱할라족)가 주류 사회를 장악하고, 내전 패자인 힌두교도 타밀족에 노골적인 반감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대선에 패배한 마힌다 라자팍세(Mahinda Rajapaksa) 전 대통령이 지지층 결속을 위해 '불교 민족주의'를 부추기며, 타밀족 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과 스리랑카의 타밀족의 미래는 불길하기까지 한다"고 지적한 유리코 코이케 의원은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이미 박탈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낼 '악의적인 법령'도 속속 마련하고 있고, 스리랑카 정부 역시 다수 민족인 불교도의 타밀족에 대한 감금과 집단 따돌림 등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는 최근 여성의 출산 간격을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가족법을 도입했다.

손 소리의 주인공은 일본 유리코 코이케(Yuriko Koike, 전 국방장관) 자민당 의원이다. 그는 'Stabroek News' 기고문에서 "미얀마의 '반 이슬람교도 정서'는 군부지배 종식과 민간정부 출범이 이뤄진 2011년부터 눈에 띄게 늘었고, 스리랑카의 '반 힌두교 정서'는 2009년 타밀족과의 내전을 종식한 이후 더욱 심해졌다"며 "미얀마와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저지른 폭력은 자비와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불교 명성에 먹칠을 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미얀마 인구 90%가 불교도인데 4%도 채 안 되는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을 탄압해 국제문제가 되고 있다. 로힝야족이 비록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오긴 했지만 이미 수백 년을 함께 살아오며 동질화됐음에도 시민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 스리랑카도 마찬가지다. 스리랑카 인구

(Rakhine) 주에서 발생한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내전에서 비롯됐다"며 "이슬람교도 로힝야족은 이때부터 보트에 몸을 실은 채 '미얀마 엑소더스'를 지금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내전 발발 첫 주에만 2천여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대형 보트를 타고 '라킨 엑소더스'를 감행했다. 로힝야족이 탄 보트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몇 달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힝야족 해상 피난민들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최종 목적지는 불분명하다. 선뜻 받아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리코 코이케 의원은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의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탄압은 '집권'이라는 정치계의 '탐심'과 불교에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불교계의 '의심'이 만든 비극"이라며 미얀마와 스리랑카 정치계와 종교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유리코 코이케 의원에 따르면 미얀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는 오는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로힝야족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재집권을 노리는 스리랑카의 마힌다 라자팍세(Mahinda Rajapaksa) 전 대통령은 타밀족 탄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유리코 코이케 의원은 "아웅산 수치 여사와 마힌다 라자팍세 전 대통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소수 민족인 이슬람교도, 로힝야족과 힌두교도 타밀족에 대한 지지 발언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두 나라의 불교계는 그들의 '정치적 이유'로 빚어지고 묵인되고 있는 소수 민족에 대한 '반감'을 털어내고 '분별심 없는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 백만장자 출가로 '화제'

리우 징충, 안후성 바오첸 사원서 출가 백만장자 사업가에서 공양간 행자로

중국 광둥성의 젊은 부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선택했다. 'Mail Online'은 10일 "지난 2012년 최소한의 삶을 서원하면서 2년간 산사에 칩거했던 광둥성의 리우 징충(Liu Jingchong · 39) 씨가 결국 출가의 길을 선택했다"며 "백만장자였던 그가 이제는 산사 공양간에서 대중에게 올릴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우 징충 씨가 3년 전 세속을 떠나기로 결심한 대도시에서는 자신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삶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삶이란 더 큰 집, 더 좋은 일자리, 더 비싼 차 등을 쫓는 삶"이라고 말한 리우 징충 씨는 "산사 인근에 초막을 짓고 강독 명상 서예에만 몰두했다"며 "벽돌로 만든 침대에서 겨울밤을 보냈지만 출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초막 생활이 마냥 좋았다"고 회상했다. 'Mail Online'에 따르면 2년간의 초막 생활을 접은 리우 징충 씨는 지난 5월 안후성 바오첸(Baochen) 사원을 방문해 삭발했다. 현지 리우 징충 씨는 사원 공양간에서 '대중 교양 소임'을 맡고 있다.



리우 징충(Liu Jingchong · 39). 광둥성 백만장자였던 그는 세속의 모든 것을 등진 채 지난 5월 안후성 바오첸(Baochen) 사원에서 출가했다. 그는 3개월째 사원 공양간에서 '대중교양 소임'을 맡고 있다.

美 카운티 두 곳의 사찰 발원

새러소타 카운티와 헨라이코 카운티에서

미국 두 곳의 카운티 불교계가 사원 창건에 나서 주목된다. 플로리다 새러소타 카운티에서는 상좌부 사찰, 버지니아 헨라이코 카운티에서는 부탄불교 사찰이 각각 창건 과정을 밟고 있다. "WGPU"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불교 연합회는 새러소타 카운티의 앵글우드 숲에 8에이커(32,375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카운티 계획위원회에 종교 부지 승인과 사찰 건축의 승인을 요청했다. 플로리다불교 연합회는 숲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명상·대중문화 공간과 스님 숙소 등 4개 동을 지을 계획이다. 플로리다불교연합 존랩(John Raab) 대변인은 "새러소타 카운티에서 상좌부 사찰의 개원 여부는 10월 중 최종 결정된다"며 "카운티 계획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2개월간의 의견 수렴과 경과 심의를 거쳐 10월 13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버지니아 헨라이코 카운티에서는 부탄에서 이민 온 나르 구렁(Nar Gurung) 스님이 사찰 창건을 서원하며



플로리다 불교연합회 사찰 건축 승인 요청 부지

지역 주민 참여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Richmond Times'가 보도했다. 나르 구렁 스님은 1년 먼저 미국을 건너온 가족들의 후원으로 2천여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한 명상·채식·기도 등 무료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Richmond Times'는 "퓨 리서치 센터 버지니아 인구통계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1% 주민들이 불교도다. 버지니아 불교도에게 부탄불교는 매우 낯선 불교"라며 "나르 구렁 스님 이벤트는 헨라이코 카운티 주민의 이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뉴멕시코주 우파야 젠 불교명상센터(Upaya Zen Center)는 8월 5~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70주기 '탈핵'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종이학 7만 마리를 모았다.

종이학 7만 마리 접어 '탈핵' 외치다

美 우파야 불교센터, 8월 5~9일 원폭70주년 평화 캠페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사건이 발생한지 70년, 먼 곳 미국에서도 원폭 피해자들의 이름을 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8월 6일 'Lion's Roar' 보도에 따르면, 우파야 젠 불교명상센터(Upaya Zen Center)와 비폭력캠페인(Campaign Nonviolence) 단체 파체 에 베네(Pace e Bene)는 8월 5~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70주기 맞이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모스 및 산타페 일대서 캠페인을 개최했다.

'Lion's Roar'는 "우파야 불교명상센터를 통해 전 세계에서 보내진 7만 여개 종이학이 애슐리 공원(Ashley Park) 무대에 펼쳐져 진풍경을 이뤘다"며 "저명한 평화주의자, 예술가, 사회활동가 등은 2백 50여명은 평화메시지를 담은 큰 플래카드를 들고 최초로 핵폭탄을 개발한 로스앨러모스 국립실험실까지 행진했다"고 설명했다. 우파야 불교명상센터 비구·비구니 스님을 비롯한 재가불자들은 실험실 입구에 천천히 들어가 삼가조를 표하는 배움을 입고 애도 발원문을 낭독한 뒤 참회 및 주

모 의식을 봉행했다. 또한 이들은 대량 살상 무기 제조 반대 시위도 열었다. 'Lion's Roar'는 "그 실험실에서는 지금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에 3배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 캠페인 참가자들은 대량살상무기 철폐를 촉구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우파야 불교명상센터 센세이 타나하시(Sensei Tanahashi)는 이날 연설을 통해 "자신이 가진 직업 속에서 진정한 자연과 인간 및 동물, 환경에 대한 존재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며 "인간은 모두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로스앨러모스에서 실험 중인 사람들도 역시 그러하다. 부디 지금까지도 진정한 가치를 깨달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익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